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시점 2025. 8. 26.(화) 17:30 < 8.27.(수) 조간 > 배포 2025. 8. 26.(화)

청년 통상인재의 무대,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려

- 본선 진출 8개 팀, 열띤 변론 펼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26(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대, 성균관대)팀은 공동으로 우수상이 수여됐다. 이외 8강에 진출한 모든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산업부 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통상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청년 통상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데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담당자	주무관	이보라 (044-203-59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요

□ 개요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日/所) '25.8.26(화) 09:30~17:30 / 서울시립대 법학관 205호 등

○ (참석) 70여명(다자통상법무관, 심사단*, 본선 진출 참가자** 등)

*심사단 : 정부·학계·유관기관 통상법무 전문가 **참가자 : 학부·대학원생 구성 8팀

○ (논제) 가상국 철강에 대한 **초국경 조치의 통상법 합치성** 여부

□ 세부 일정(안)

	일 정	내 용			비고
개회	09:30-09:40(10')	모두발언 (기념사진)	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	다자통상 법무관	
경연대회	09:40-09:50	오리엔테이션			
	09:50-11:35	**8강전**			
	11:35-11:50	4강팀 발표			
	11:50-13:20	오찬			
	13:20-14:40	**준결승전**			
	14:40-14:50	결승팀 발표			
	14:50-16:10	**결승전**			
	16:10-16:30	**우승팀 발표**			
시상식	16:30-16:40	모두발언	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16:40-16:50	문제 강평	김재희 변호사		
	16:50-17:10	**시상식** 대상(1위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7:10-17:30	단체기념 촬영 및 폐회 (대상팀 산업부 통상TV 인터뷰)			